전남 여수 한 식당에서 남성 손님이 일하고 있던 여성 직원을 추행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전남 여수 한 식당에서 여성 직원 가슴을 서슴없이 추행한 남성 손님 모습이 공분을 샀다. 당시 식당에는 피해 여성 딸이 있었고 이 모습을 목격하고 눈물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5일 전남 여수시의 한 식당에서 60대 남성 손님이 여성 직원 신체 부위를 만지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당시 피해자인 태국인 여성 직원 A씨는 문제의 손님이 있는 테이블에 무언가를 갖다주고선 뒤로 물러났다. 이때 파란색 재킷을 입은 남성 손님이 돌연 A씨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깜짝 놀란 A씨는 몸을 움츠리면서 남성 손을 쳐냈다. 이어 남성의 팔을 '퍽' 때렸다. 가해 남성은 아무렇지 않은 듯 자리를 지켰고 같이 있던 일행이 대신 일어나 A씨에게 허리 숙여 사과했다.당시 A씨 딸은 어린이날을 맞아 엄마 일터를 찾아왔고 옆에 있다가 이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A씨는 남성을 형사 고소했지만 남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경찰 연락을 피하고 있다.가게 사장이자 제보자는 "A씨가 태국인 이주 여성인데 불법 체류자인 줄 알고 (성추행을) 저지른 것 같다"며 "A씨 딸은 큰 충격을 받아 울면서 집에 갔고 피해자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누리꾼들은 "완전 돌아이네", "추하게 늙지 맙시다", "얼굴 좀 공개해라. 범죄자를 왜 이렇게 감싸냐" 등 분노했다.  
  
  
  
  
  
  
  
전남 여수 한 식당에서 남성 손님이 일하고 있던 여성 직원을 추행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